無印良品

너도밤나무 온습도계
취급설명서

※ 구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.
※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설명서를 읽어 주십시오.
※ 설명서는 반드시 보관하여 주십시오.

사용하시기 전에

본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시기 위하여, 사용 전에 반드시 이 취급설명서를 읽으시고, 제품의 특성을 숙지하여 주십시오.

●본제품은 실내용입니다. 실내의 온도 또는 습도의 측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●본제품은 공업용 측정 기계가 아니므로, 온도・습도의 정밀 오차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2차 재해나, 그 외의 손해 등에 대하여 본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●본제품의 온도・습도는 설정한 장소의 값을 표시합니다. TV 등에서 발표되는 일기예보의 온도・습도 수치와는 다릅니다.

사용 시 주의할 점

●정밀기계이므로 거칠게 다루거나,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.
●먼지나 수분이 붙으면 정확한 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, 증기에 직접 닿는 곳에 놓거나, 본체 뒷면의 슬릿에 입김을 불거나 하지 말아주십시오.
● 제품을 분해하거나, 개조하지 마십시오.

설치 장소에 관하여

직사광선이 닿는 곳이나 냉난방기구, 가습기, 제습기 등의 가까운 곳을 피하여, 공기 순환이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하여 주십시오.
불안정한 장소에 놓으면 쓰러지거나, 낙하하여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수평한 곳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. 또한, 다음와 같은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아 주십시오. 고장 또는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.

●온실, 사우나, 욕실, 냉장고, 차 안.
●온도가 +50℃(50도)이상인 곳. 예를들어, 장기간 직사광선에 닿는 곳.
난방기구의 열풍이나 화기와 가까운 곳.
●냉온방기구의 바람이 직접 닿는 곳
●온도가 −10℃(영하 10도) 이하인 곳. (플라스틱 부품의 품질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)
●욕실 등 습기가 많은 곳
●먼지나 유분이 많이 발생하는 곳
●차 안이나 선박 등, 진동이나 충격이 있는 곳.
●본체의 나무부분은, 상당히 건조하거나 다습한 상태가 오래되면, 상할 수 있습니다.
●실외에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.

고장인가?라는 생각이 드셨다면

■ 증상 : 온도나 습도의 바늘이 움직이질 않는다.
■ 원인 : 공기의 흐름이 없는 장소에 설치했다.
■ 처치 :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변화를 확인한다.

온도・습도는 설치장소에 따라 변합니다

온습도계가 정확히 표시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온습도계는 공기가 순환하는 약 1~2시간 후에 정확한 수치가 표시됩니다.
온도(습도)가 변하지 않습니다. 고장인가요?

〈온도에 관하여〉
온도계는 공기 덩어리의 흐름에 의하여 그 변화를 감지합니다. 통풍이 잘 되지 않는, 공기의 밀도가 높은 방에, 공기의 흐름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게 되면, 온도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반대로, 공기의 흐름이 있는 야외나, 통풍이 무척 잘 되는 실내의 장소에 이동하게 되면, 온도는 변화하기 쉬워집니다.

〈습도에 관하여〉
설치장소나 방의 환경에 의하여, 습도계는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
습도는 공기 덩어리에 의하여 이동하기 때문에, 같은 실내에서도 통풍이 잘 되는 곳과 잘 되지 않는 곳에서는 습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또한, 에어컨의 바람이나 조명으로 따뜻해진 바람이 직접 습도계에 닿는 것으로도 영향을 받습니다.

제품사양

※제품성능은 개량을 위해서,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사이즈: 폭 70 x 길이 43.5 x 높이 70mm
중량: 96g
[온도계] 센서: 바이메탈 온도센서
측정범위: −10 ~ +50℃
정밀범위: −10 ~ +40℃
정밀도: ±2℃
※온도계의 눈금 −10℃이하, +40℃이상은 참고치입니다.

[습도계] 센서: 바이 메테리얼식 습도 센서
측정범위: 10~90%
정밀범위: 35~85%
정밀도: ±5% (기온 20℃~25℃에서)
※습도계의 눈금 35%이하, +85%이상은 참고치입니다.

관리방법에 대하여

● 오염 상태가 심각할 경우에는 물로 희석한 중성세제나 비눗물을, 부드러운 천에 소량으로 묻혀서 깨끗하게 닦아낸 다음, 정리하여 주십시오.
● 오염된 부분을 닦을 때, 벤진, 시너, 알코올, 스프레이식 클리어 종류는 사용하지 마십시오.